

청림을 심고 신뢰를 키우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식목행사 개최

✎ 황진호 기자 | ⓒ 승인 2026.04.23 17:51 | □ 17면

‘청림새싹나무’ 식재·손도장 서약 통해 반부패 의지 다져
환경 정화 활동 병행…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기관 역할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직원들이 ‘청림새싹나무’를 식재하며 청림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식목일을 맞아 ‘청림’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으며 공공기관의 청림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는 23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청림새싹나무’ 식재 행사와 함께 청림 손

도장 서약,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목행사를 넘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직원들은 청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손도장을 찍는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또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 환경 정화 활동은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병탁 지사장은 “청렴새싹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청렴한 조직문화도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탁 지사장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오늘 심은 나무처럼 직원들의 청렴 의식도 함께 성장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직원 A씨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서약 방식이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며 “청렴 실천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B씨는 “환경 정화까지 함께 진행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